

第300回國會  
(臨時會)

# 國會本會議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1 號

國會事務處

2011年5月4日(水) 午後 3時

### 議事日程

1. 제30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附議된案件

- 의사진행의 건 ..... 1
-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2
- 토론종결 동의를 건 ..... 9
- 1. 제30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11

(22시03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회가 탄생한 이래 300회의 임시국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성숙한 모습을, 사랑받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의사진행의 건

(22시04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의원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처리하려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부실한 피해대책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국가 중대사인 한·EU FTA 비준안

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뭘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장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상의 불법 회의입니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최 여부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법 그만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법 좀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밀실 야합을 통해서 이를 대체했고, 의장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도 민심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다시 청와대 거수기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비준동의안을 유럽 순방을 앞둔 대통령의 출국 선물로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는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매한가지입니다.

한·EU FTA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

는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설사 법 개정을 하더라도 한·EU FTA 비준안의 효력을 바꿀 수 없는 SSM법 개정안을 피해대책이랍시고 밀실에서 한나라당에 던져 합의 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뒤늦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는 웃지 못할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온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피해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대 현안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분명히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회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사실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누차에 걸쳐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과 완전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은 우리 당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우리 당은 기본적인 절차와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한·EU FTA 비준안의 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한·EU FTA 비준안 처리만을 위한 원 포인트 국회에도 반대합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민생현안이 산적한 이때 여야가 어렵사리 임시국회를 열었다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민생법안 치고……

조용히 하세요!

처리가 급하지 않은 법이 하나도 없고, 산적한 민생법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달랑 법안 하나 처리하고 국회를 닫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체의 회의 결과는 원천 무효이고,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동시에 FTA 피해대책 수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국회의 의사일정을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밀실 야합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에 따른 본회의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2시09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남경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남경필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하는 한·EU FTA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EU FTA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는 등 양 당사자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또 보완대책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차례의 공청회 또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통법 및 상생법 등의 국내 법규와 한·EU FTA의 충돌 가능성 또 자동차 등 상품의 관세철폐의 효과 또 친환경 학교급식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4월 2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 또 통상교섭본부장,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식품부차관 등이 당·여야·정 회의를 걸쳐서 추가적인 야당의 요구를 논의해서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외통위는 일부 이견이 있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유기준 간사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그 과정 속에서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동철 민주당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은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그 역시도 저는 서로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저희는 이례적으로 최인기 위원장님께 충분한 발언의 기회도 드렸습니다.

또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충분한 시간은 드리지 못했지만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표결을 했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통외통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이후에도 여야·정 회의를 통해서 야당 측이 요구했던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오늘 한·EU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EU FTA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중소기업·영세상인들에 대해서 드린 약속을 조금이라도 떠올린다면 한·EU FTA는 지금 이대로는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협상 요구를 국회가 먼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작년 10월, 작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243명 가운데 241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259명 가운데 254명, 역시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지난 지금 국회가 당시의 결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위해서 뜻을 모아 통과시켰던 유통법과 상생법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제시된 것이 유통법상 SSM 입점 제한거리를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 이것을 1km로 늘린 것입니다.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EU FTA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은 한·EU FTA의 양허표에 프랑스와 벨기에가 한 것처럼 '유통법과 상생법에 관련된 규제는 유효하다' 이렇게 한·EU FTA에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EU FTA 협정문에는 어떤 규제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을 그대로 둔다면 유통법과 상생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국제법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고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하지도 않을 것이며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FTA 통과 이후에 유통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이한 논리를 정부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m 입점 규제는 한·EU FTA의 구법이고, 500m에서 1km의 입점 규제는 한·EU FTA의 신법입니까? 규제가 생겨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한·EU FTA가 유통법을 이기게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어떠합니까? 이것 역시 일반적인 규제에 EU 기업이 들어오는 SSM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유통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EU FTA를 재협상해서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다면 입점 제한거리가 1km이든 2km이든 일몰시한이 7년이든 10년이든 EU의 제소 한 번으로 언제든 무력화될 것입니다. EU가 제소하는 데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법 논리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출시점은 바로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손해배상액수만 막대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통법이 형해화되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상생법은 어떻습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EU FTA

때문에 절대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가 자율조정으로 운영된다면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생법은 자율조정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정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EU 기업들은 사업조정기간 동안에 일시 사업정지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을 없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차곡차곡 그 손해는 계산되어서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한·EU FTA와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대책은 재협상뿐입니다.

우리 국회가 5개월 전에 한 결정을 지금에 와서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내리는 결정의 의미는 중소기업세상인들을 다시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국가는 당신들을 보호할 수 없고, 그리고 한·EU FTA에 맞서서 당신들을 보호할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당신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벼랑의 끝으로 돌아가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자고 여야가 너무나 오랫동안 노력한 법률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상인들의 방문을 받으셨습니까? 그 결과로 저희가 만들어 낸 법안이 아닙니까?

국회가, 저는 18대 국회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뒤엎는 일을 어떤 논리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이번에 한·EU FTA를 처리함으로써 스스로 뒤엎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상생법 통과 직후에 ‘600만 소상공인들이 유통법과 더불어서 바랐던 것이다’, 이제 시장 한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개월 만에 중소기업들은 살아났습니까? 5개월 만에 SSM은 더 이상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책임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요구해야 맞고 재협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내 소란)

그것이 공청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는 바로 그 방법을 찾아 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습니까? 통상교섭본부는 오로지 작년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 때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EU FTA 협정문에 반대된다면서 막는 역할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한·EU FTA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죽이지 않는다고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의 이야기입니까? 5개월 만에 그 차이를 왜 의원 여러분께서 찾아내지 못하십니까? 왜 지적하지 못하십니까?

(「의장님, 정리 좀 하라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기본적인, 법률적인 논리가 있다면 그리고 중소기업세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문제를 그대로 놓고 지나가신다면 저는 18대 국회가 만들어 낸 최대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정희 의원! 이정희 의원! 벌써 한 3분이 지났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 앞으로 한미 FTA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제 그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한·EU FTA는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범죄를 만들어 내신다면 그리고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제 통상교섭본부는 어떤 것이든 국회를 한순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니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하고……

○의장 박희태 이정희 의원!

○이정희 의원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고 보이실 때 정확하게 통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섭단체의 하나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토론해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것,」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정말 책임 있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한 번 모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한·EU FTA를 처리하고 마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아무리 이 문제가 그동안 여야정 합의가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합의가 불투명한 기반 위에 올라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을 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지 스스로 검토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잘했어. 내려가, 이제,」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이 책임제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한미 FTA에도 배제되어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보장되는 것을 한·EU FTA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희태 자, 이제 그만하세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적어도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이

야기됐던 한미 FTA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한·EU FTA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박희태 그만하세요.

○이정희 의원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되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수준으로 과연 얼마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이정희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이군현,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께서 찬성하는 것으로 가신다면 우리 국회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어 낸 의미를 이미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 소란)

한 문제를 더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지방,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도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조차도 이번에 무너지게 될 판입니다. 중소기업 말고는 다른 지역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할당도 줄 수 없는 것이 한·EU FTA의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의장 박희태 그만하고, 그만하고 마쳐 주세요.

○이정희 의원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 119조2항에 기초해서 경제주체들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추하게 비쳐, 이제 그만해. 또 반대토론 하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누구 따라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내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그렇다면 이제는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저는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10월 달에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사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게 되는 결정이 바로 국회가 한·EU FTA라는 명목으로 어떤 실질적인 심사권도 발휘하지 못한 채로 헌납하고 말았다는 것을,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헌납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부터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올라가세요, 이군현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민노당이 가진 표만큼만 권리 행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한·EU FTA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한·EU FTA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WTO 정부조달협정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군현 의원님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해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WTO의 정부조달협정은……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하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 수고했어요.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WTO의 정부조달협정은 한미 FTA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희태 그만하세요.

○이정희 의원 그것이 급식의 (청취 불능)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EU FTA 토론 과정에서 (청취 불능) 되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게 됩니다.

(「정도껏 해야……」 하는 의원 있음)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것은」 하는 의원 있음)

(「정도껏 해야지. 뭐야, 내려와. 아무리 좋은

말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시켜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 선포하세요. 의사진행 방해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의장 박희태 그만하세요.

○이정희 의원 의원 여러분!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누구 따라하는 것이야, 뭐야. 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할 얘기 했으면 내려와야지」 하는 의원 있음)

(「기본부터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은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EU FTA를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호소를 드리는 것이 최소한 단 한 분이라도,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이제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 내려와요,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지난 5개월 전의 입법에 여러분의 양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어요, 우리가」 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정확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 고성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지난 5월 2일 한·EU FTA 여야정 합의는 대한민국 국익을 고려해서 대타협을 본 정치 복원의 산물입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원만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한·EU FTA로 인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 공감해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지식경제위원장, 농수산식품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각 부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정 긴급회담을 열어서 장시간의 협상 결과 타결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9일과 5월 2일 양 이틀 장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한·EU FTA 관련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합의문까지 작성을 해서 5월 4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눈앞에 두고 합의 파기라는 민주당의 입장 변복은 대한민국의 국익은 내팽개치고 어렵사리 이루어 낸 여야정 대타협 정신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소인배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속 의원들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여야정 합의를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생각하는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의 무능하고 신뢰 없는 리더십이 이번 기회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FTA 비준동의안과 어렵게 어렵게 정부를 설득해 마련한 농·축산업, 그리고 수산업 등 피해산업 대책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마저 완전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도 하루 종일 인내심을 가지고 국익을 생각하는 소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만을 일삼는 일부 극렬 강경세력과 대권욕에 가득 찬 일부 대선 주자들, 그리고 재·보선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해진 민주당은 타당한 논리적 근거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정 대타협의 산물인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국민 앞에 약속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축산 어업 지원 대책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축산 어업 지원 대책법이 동시에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또 특히 농축산업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이 한 치의 염려도 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우리 한나라당이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민노당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켜서 해 주세요, 경청할게요」 하는 의원 있음)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우리 이정희 대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듣기가 역겹습니까?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을 지켜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자, 보세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한·EU FTA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박 겉핥기식 비준에 임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저희 민주노동당은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국회인지…… 재벌을 대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EU FTA는 유럽의 27개 나라와 맺는 협정입니다. 한 번 체결되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국제조약으로 9개나 되는 국회 상임위에 의견을 물어왔는데 단 한 군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만 의견을 내고 나머지는 의견까지 내지 못하는 겁니다.

4월 6일 날 국회에 제출되어서 상임위에 12일 날 상정되어서 28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16일 동안에 유통·법률·건축·의료·컴퓨터·부동산·교육·환경·금융·관광·세탁·미용 등 방대한 분야를 서비스로 규정하여 EU의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총 15장 273개 조항에 22개의 부속서와 2개의 정서, 두꺼운 양허표로 구성된 1290페이지의 방

대한 이 조항을 16일 동안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래도 졸속 검증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EU FTA는 단순히 양 국가의 관세를 낮추어 수치를 늘리는 협정이 아니라 이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하나의 거대한 법률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EU 27개 나라는 택시 허가에서, 7개 나라는 소매 분야 경제적 수요심사에서, 이탈리아는 미용실 개설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권한을 확보했지만 그리고 EU는 도매·소매·프랜차이즈 중 소매 분야에서 백화점 분야 기존 매장 보호를 위한 심사제도의 운영권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EU FTA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도매 서비스·소매·프랜차이즈 편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호장치들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한 없이, 오히려 한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진입 보장을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가 한국의 유통 상인들에 대한 한·EU FTA의 협정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부터였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중소기업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놓고 서민경제를 보호할 의지조차도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인데 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에서 입법발의해서 보호하려고 할 때는 정면으로 한·EU와 충돌된다고 이것을 8개월 동안이나 막아온 것이 외교통상부입니다.

그때놓고 지금은 ‘제소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속기록이 없는 외교통상위원장실에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 이런 말 바꾸기로 국회의원을 농락하고, 국회를 농락하는 것은 서민과 유통 상인·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조정제를 통해서 잘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도 이 사업조정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SSM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협정문을 재개정하겠다, 비준 후에’ 이 말은 매매계약에 도장을 찍

어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에 들어가면서 이 이후에 계약을 다시 하겠다, 조건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고 날아가는 새도 웃을 짓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보십시오.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유통 상인들, 농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눈물이 날 지경.

내가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아요. 농민들 대책 세우는 게 이게 뭐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5.8%의 국가 총 재정 상에 농림수산예산이 4.8%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GDP 비율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 GDP가 이렇게 향상되고 올라가면 먹을 것도 더 양질의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농업 26% 자급밖에 안 되는데 더 농업 투자해 가지고 농업 예산 늘려야 됩니다.

이것 지적하니까 또 뭐라는지 아세요?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부입니다.

(「시간 지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 소수 소작농들, 소규모 농민들 구조조정하면서 전업화·규모화·기계화하면서 대단위로 늘리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식량 자급도 27%에, 식량 위기의 쓰나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예산에 대해서 바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 정부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잘 했어요, 그만하세요. 잘 했어, 들어가 이제. 아주 잘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태 강기갑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강기갑 의원 내가 이 마이크 국민들에게 안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할 소리를 해야 병이 안 들겠습니다.

(웃음소리)

정말 국회가 이렇게 비준을, 이렇게 검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대책을 노른자 없는 계란이요, 양꼬 없는 찌빵과 같은 이런 검증을 해서 안 됩니다. 공청회 한 번 해 가지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통상절차법 그것 누가 17대 때부터 제출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했는데……

(「토론 종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것 안 하고 있으면서 이 상임위에서 전문가들 오전에 한 사람, 피해 농민들 그다음 날 오전에 불러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왔어요. 그만해요,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인 발언했으면 됐잖아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소위에서 그렇게 의견 듣고, 상임위에 공청회 한번 안 하고……

(「공청회 했더니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이 협정문이 제출되고 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안 지가 얼마 됐습니까? 4월 12일 날 상임위에 상정한……

(「그 뒤에 공청회 다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 가지고 검증해야 됩니다.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태 강기갑 의원, 이제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정말 저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잘 했어」 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재벌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선거 때마다 왜 그런 이야기합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들 피눈물 흘리는 그 한탄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밀어붙이고 꼭두각시에 거수기 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반성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해!」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태 자, 토론 이제 그만해 주세요.

○강기갑 의원 어디 이렇게 하면서 동료 의원들 시간 좀 더 지나간다고……

(장내 소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이게 한나라당……

(「이게 왜 밀어붙이는 거야? 누가 뭘 밀었어? 우리 가만히 앉아 있구먼」 하는 의원 있음)

내가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상대할 가치도 못느낍니다.

○의장 박희태 이제 내려가세요.

(「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강기갑 의원 다시 한번 반성을 하세요.

한나라당은 여당이기에 전에 입법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입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에요, 입법부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잘 했어, 됐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라도 막고 싶었지만 ‘제발 싸움만은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웁은 말씀이에요. 자,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 했어, 아주 잘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시간만 지키면 멋있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태 방금……

○ 토론종결 동의를 건

(22시45분)

○의장 박희태 김무성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토론종결 동의를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08조3항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먼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토론 신청을, 토론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장님!)  
 예?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토론을 못 하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법대로 하는 건데……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토론 신청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기입니까?)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장님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토론할 만큼 했습니다.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정말 이렇게 하세요?)  
 (「내려가!」 하는 의원 있음)  
 의석 비율로 따져봐.  
 (「법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정말로 이렇게 하기냐고! 내가 눈물로 호소했잖아!)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제가 이틀 전에 신청한 것은 왜 안 받아 줍니까?)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내가 거들 테니까 6명 토론 좀 해 달라고……)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정말로 이렇게 하세요?)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지금 말이 됩니까, 이틀 전에 신청했는데?)  
 (「조승수 의원!」 하는 의원 있음)  
 (「들어와요!」 하는 의원 있음)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내가 호소를 했소! 몸으로 안 할 테니까 6명 토론해 달라고!)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이런 식으로 제 2의 날치기 하시는 겁니까?)  
 투표 결과를……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급했으면, 이게 날치기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역사에 책임을 지겠소?)  
 들어오지를 말지, 이게 무슨 짓이야!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발언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이면 의장답게 처신하셔야지요!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뭘니까? 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의장! 발언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오!)  
 제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토론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정희 의원 단상에서 —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잘 지켰으면 이러지 않지요」 하는 의원 있음)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한나라당의 김무성 대표!)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때려치우세요! 그만하세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또 날치기 하자는 거예요, 지금?)  
 (○홍희덕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지, 뭐야 이게!)  
 법이 안 좋거든 법을 고쳐 주세요.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여러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정말로 사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거두면서 내가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한테 물리력 안 쓸 테니까 우리 6명 토론해 달라고 읍소하고 읍소하고, 이것마저 봉쇄한다면 이 국회가 뭐하자는 국회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토론 생략, 본회의 표결이 도대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한나라당만 국회의원입니까?)

(○김충환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몇 명인데 다 해요?)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저는 이틀 전부터 이미 토론신청 했습니다. 왜 기회도 안 줍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새로운 기준, 새로운 독재 좋으시겠습니까.)

재석 169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희덕 의원 단상에서 — 토론을 해야지, 토론을!)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히틀러도 의회 장악하고 독재했습니다. 이게 독재 아니고 뭐니까?)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미리 토론신청해 놓고……)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토론도 못 하게 하는 이게 독재 아니고 뭐니까?)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단상에서 —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그렇게 두려워? 어!)

(○이사철 의원 의석에서 — 강기갑 의원……)

(○강기갑 의원 단상에서 — 조용히 해! 이사철!)

(○이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하세요!)

(○강기갑 의원 단상에서 — 의장이 제대로 해야 의장이야!)

(○홍희덕 의원 단상에서 — 의장이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무슨, 날치기 해 놓고 말이야.)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오늘 처리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동 법률안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교섭단체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단상에서 — 만장같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소수정당의 토론을 못 받으요?)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30분 이상 더

가겠냐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이게 폭력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다수의 폭력 아니고 뭐냐고!)

금일 한·EU FTA 비준에 따라 우리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FTA 지원 특별법 및 SSM 관련 법 등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FTA 이행기금 출연 등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회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여러분! 이번 한·EU FTA 협정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하나 조항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개적인 본회의 토론은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1. 제30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2시50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본회의 토론 종결 표결 언제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 17대도 없었습니다.)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이게 한나라당 쉐신하자는 거요? 국민의 목소리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제300회국회(임시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이렇게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거요. 누구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김무성 대표에게 분야별로 모여서 의약 분야, 중소기업 분야, 농업 분야,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봉쇄한다고 그런다면 이 국회가 뭐하자는 국회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의원 발언하시기를 신청했는데 하시렵

니까?

(「안 한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기갑 의원 단상에서 — 야당 의원 토론 두 사람 했어요. 조금 시간 넘겼지만 이런 식으로 봉쇄하는 게 어디 있어?)  
 (○권영길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독재고 이게 다수의 횡포고 그런 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오.)  
 (장내 소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다음에 하시지요.  
 지금 이인기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조승수 의원 단상에서 — 아무리 철학이 다르지만 최소한의 토론은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갑 의원 단상에서 — 시간 끈 게 얼마인데 그것을 가지고 종결을 시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토론종결 동의의 건**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김성수 남경필 유정현 이경재  
 홍정욱  
 (홍정욱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63인, 기권 의원 5인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옥이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혜성	김호연	김효재	나경원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류근찬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노철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진	박희태	변웅진	배영식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박준선	박진	박희태	배영식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송영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진식	이경제	이균현	이두아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윤진식	이경제	이균현	이두아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윤성	이명규	이상득	이병석	이사철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윤성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희창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이희창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해결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정진섭	정태근	정해결	정희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최구식	최병국	한기호	허원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176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곽정숙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출장 의원(1인)

김성순

○청가 의원(15인)

권경석	권영세	김창수	박근혜
박선영	윤상일	이범관	이애주
이용경	이정현	이찬열	이학재
임영호	정영희	최연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권오을  
의사국장 한공식

○출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김선동	전라남도 순천시	민주노동당	2011. 5. 3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김형오	외교통상통일	정무	한나라당	2011. 4. 28
정옥임	정무	외교통상통일		
정몽준	외교통상통일	보건복지		
손숙미	보건복지	외교통상통일		
김효재	외교통상통일	지식경제		
권성동	지식경제	외교통상통일		
손숙미	외교통상통일	보건복지	한나라당	2011. 5. 3
정몽준	보건복지	외교통상통일		
권성동	외교통상통일	지식경제		
김효재	지식경제	외교통상통일		
정옥임	외교통상통일	정무		
김형오	정무	외교통상통일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윤리특별	강기정	서종표	민주당	2011. 4. 28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2011. 4. 27

○의안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황영철·공성진·김선동·김성동·김영우·박순자·박준선·성윤환·안효대·유기준·윤석용·윤진식·이경재·홍일표 의원 발의)

5월 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김영선·조원진·황우여·차명진·원희목·김충환·정해결·정옥임·이해봉·강성천·박대해·구상찬·임해규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이애주·신성범·김혜성·김금래·김옥이·유기준·김장수·이춘식·최경희·김성동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손숙미·김태원·조원진·김성태·이진복·이한성·원희룡·조전혁·강석호·박진 의원 발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손숙미·이한성·김태원·조원진·김성태·이진복·원희룡·심재철·조전혁·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최규식·강창일·박영선·이명수·원혜영·신낙균·유선호·강봉균·이화수·정동영·서종표·문희상·최종원·박은수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1. 4. 29 정부 제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정희수·이경재·정해결·이두아·윤영·조원진·황우여·이명수·김광림·김금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 4. 29 정부 제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주승용·박은수·이춘식·강창일·백원우·조영택·양승조·이석현·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

5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백원우·박은수·최재성·전현희·

주승용 · 문학진 · 조정식 · 장병완 · 이석현 · 장세환 · 최규식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9 백원우 · 박은수 · 최재성 · 전현희 · 주승용 · 문학진 · 조정식 · 장병완 · 이석현 · 장세환 · 최규식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9 이진복 · 현기환 · 이종혁 · 조문환 · 박대해 · 허태열 · 김세연 · 허원제 · 조원진 · 정의화 · 김무성 · 유재중 · 장제원 · 서병수 · 안경률 · 유기준 · 박민식 · 조정태 · 김정훈 · 이성현 · 김형오 의원 발의)

5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이낙연 · 이주영 · 박주선 · 김정권 · 조영택 · 윤석용 · 김효석 · 유정현 · 박영선 · 김성곤 · 공성진 · 백재현 · 유성엽 · 최인기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김영선 · 이한성 · 임해규 · 황우여 · 손범규 · 안효대 · 김선동 · 유승민 · 이학재 · 공성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김장수 · 원유철 · 송영선 · 이윤석 · 김옥이 · 심대평 · 김소남 · 김정권 · 김학용 · 유승민 · 김학송 · 이경재 · 황진하 · 조정태 · 유일호 · 서종표 · 유정현 · 이진삼 · 김영우 · 양승조 · 한기호 · 이명수 · 정의화 · 이애주 · 이화수 · 주호영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정하균 · 강성천 · 김혜성 · 송영선 · 유일호 · 윤상현 · 이화수 · 정수성 · 최경희 · 홍사덕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스마트워크 촉진법안**(김정권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김정권 · 서상기 · 이윤석 · 김학송 · 한선교 · 이한성 · 정수성 · 권영세 · 김태원 · 황영철 의원 발의)

5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정옥임 · 김영우 · 한선교 · 김금래 · 조문환 · 이종혁 · 우제창 · 유정현 · 김호연 · 김성태 · 강용석 · 신영수 의원 발의)

5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1. 5. 2 정부 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최규성 · 김우남 · 오제세 · 강창일 · 유선호 · 이찬열 · 강기정 · 백재현 · 김효석 · 김재윤 · 강기갑 · 노영민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최규성 · 김우남 · 오제세 · 강창일 · 유선호 · 이찬열 · 박기춘 · 김재윤 · 강기갑 · 노영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김재경 · 김성곤 · 황우여 · 정태근 · 최구식 · 여상규 · 김용태 · 김정권 · 조정식 · 박민식 · 김선동 · 이종구 · 이화수 의원 발의)

5월 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생태계위해 외래생물관리법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주호영 · 유기준 · 김영진 · 원희룡 · 유승민 · 강석호 · 주성영 · 김효재 · 이한성 · 이윤석 · 이애주 · 김정권 · 박종근 · 신영수 · 손범규 · 박순자 · 김성곤 · 공성진 · 조원진 · 이명규 · 박준선 · 김동성 의원 발의)

5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정임대료법안**(조승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조승수 · 곽정숙 · 이명수 · 유원일 · 강기갑 · 권영길 · 이종걸 · 장세환 · 김영진 · 홍희덕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 박병석 · 박주선 · 조영택 · 홍영표 · 김재균 · 신건 · 최종원 · 전현희 · 오제세 · 박기춘 · 백원우 · 박은수 · 조정식 · 양승조 · 정장선 · 김효석 · 최재성 · 추미애 · 이종걸 ·

우윤근 의원 발의)

5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경제 의원 대표발의)

(2011. 5. 2 이경제 · 최구식 · 이한성 · 유기준 · 이학재 · 임동규 · 김정훈 · 황영철 · 김혜성 · 김을동 · 김정권 의원 발의)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5. 2 권영진 · 김세연 · 이화수 · 김효재 · 홍정욱 · 최구식 · 이철우 · 조전혁 · 조운선 · 신성범 의원 발의)

5월 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정옥임 · 이한성 · 이춘식 · 신성범 · 조문환 · 이재선 · 유정현 · 김성태 · 강용석 · 신영수 · 조원진 의원 발의)

5월 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김춘진 · 김호연 · 김영록 · 오제세 · 김성순 · 전해숙 · 유성엽 · 김영진 · 김성곤 · 안민석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조영택 · 김재균 · 유선호 · 박주선 · 박은수 · 전현희 · 양승조 · 강봉균 · 추미애 · 김진표 · 김효석 · 신건 · 장병완 · 강기정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송영선 · 강용석 · 이정선 · 김금래 · 송민순 · 심대평 · 권경석 · 김소남 · 이혜훈 · 정영희 · 김혜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황영철 · 김정권 · 이경제 · 이종혁 · 이윤석 · 이한성 · 윤석용 · 유성엽 · 김영우 · 김성태 · 박준선 · 김성수 의원 발의)

5월 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김성희 · 이상권 · 유성엽 · 현경병 ·

이종혁 · 김을동 · 강용석 · 강승규 · 김성수 · 원유철 · 조원진 의원 발의)

5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강기갑 · 광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권영길 · 김우남 · 유성엽 · 강창일 · 김진애 · 최규성 의원 발의)

5월 4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김성희 · 김세연 · 한선교 · 공성진 · 이정선 · 신영수 · 원희목 · 강용석 · 박준선 · 이상권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박영아 · 서상기 · 이종혁 · 김정권 · 윤석용 · 원희목 · 노철래 · 손범규 · 이화수 · 송훈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전여옥 · 최구식 · 이인제 · 김성태 · 장제원 · 정진섭 · 장윤석 · 정양석 · 이사철 · 조해진 · 신영수 · 정몽준 · 강명순 · 신성범 · 이애주 · 장광근 · 강승규 · 고흥길 · 허천 · 이철우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강기정 · 강창일 · 김우남 · 이미경 · 최규성 · 문학진 · 신건 · 양승조 · 백재현 · 조영택 · 김상희 · 최영희 · 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강기정 · 강창일 · 김우남 · 이미경 · 최규성 · 문학진 · 신건 · 양승조 · 백재현 · 조영택 · 김상희 · 최영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조영택 · 김재균 · 유선호 · 박주선 · 박은수 · 전현희 · 양승조 · 추미애 · 김진표 · 문희상 · 김효석 · 신건 · 장병완 · 강기정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1. 5. 3 강기정·강창일·김우남·이미경·  
최규성·문학진·신건·양승조·백재현·  
조영택·김상희·최영희·원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김금래·김세연·박대해·신성범·  
안효대·유재중·전여옥·정옥임·정해걸·  
정희수·조진형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3 김금래·변웅전·유재중·원희목·  
전여옥·정양석·정옥임·정희수·조진형·  
최경희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김금래·김세연·박대해·신성범·  
안효대·윤석용·원희목·이춘석·전여옥·  
정옥임·정해걸·정희수·최경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강기정·강창일·김우남·이미경·  
최규성·문학진·신건·양승조·백재현·  
조영택·김상희·최영희·원혜영 의원 발의)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3 김금래·김세연·손숙미·유재중·  
원희목·전여옥·정양석·정옥임·정희수·  
최경희 의원 발의)

5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제30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1. 5. 4 의장 제의)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3일간)

(2011. 5.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5. 4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  
협정 비준동의안**

(2011. 4. 6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2008. 10. 8 정부 제출)

2011년 5월 4일 제출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IT 전산보안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1. 4. 29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은행 제50기(2010년도) 연차보고서**

(2011. 4. 29 중소기업은행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300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	2011년 5월 2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한-EU FTA 비준동의안 등 주요법안 처리
요 구 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외 171인

(2011. 4. 29)